

## 2. 충암 김정(金淨)의 「도근천수정사중수권문(都近川<sup>1)</sup>水精寺<sup>2)</sup>重修勸文)」

※ 정덕(正德) 신사(辛巳) 정월기망(正月既望)에 쓰다. 홍유손(洪裕孫) 또한 앞서 이런 글을 썼다.(正德辛巳正月既望洪裕孫先亦此文)<sup>3)</sup>

역주 · 현행복

### 【讀原文】

維耽羅國於海島舟道復遠<sup>4)</sup>有風濤寇剽之虞<sup>5)</sup>土之人士率憚<sup>6)</sup>於遊學北方聞道<sup>7)</sup>者蓋鮮以故眈俗<sup>8)</sup>朴鄙而癡<sup>9)</sup>也而好教<sup>10)</sup>凡有所求祈禳病厄得喪福禍一

- 1) 都近川(도근천) : 한라산에서 정상에서부터 발원하여 제주시 외도동 해안으로 내리는 큰 내를 두고 일컬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제주목 산천조에, “도근천은 제주목에서 서쪽 18리에 있다. 일명 수정천(水精川), 또는 조공천(朝貢川)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한편 김상헌(金尙憲)은 『남사록(南槎錄)』에서 언급하기를, “도근천은 일명 수정천(水精川)이라고 하고, 조공천(朝貢川)이라고도 한다. 제주 사람들의 말이 매끄럽지가 못하는데, 도근천(都近川)은 곧 조공천이란 말의 그릇된 표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등반로가 없던 옛날에는 이 내를 거슬러 한라산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런 기록들도 종종 산견된다. 예컨대 김치(金緻)는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에서 이 내를 두고서 철천(鐵川), 곧 무쇠내라고 호칭했는데, 현재 도 무수천이란 명칭이 유지되고 있다.
- 2) 水精寺(수정사)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불우조에 “수정사는 도근천 서쪽 언덕에 있다.”라고 했고, 답수계의 『증보탐라지』에는 “도근천 서쪽 언덕에 있다. 1300년(충렬왕 26)에 원나라 왕후가 창건하였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수려하며, 두 불상이 있으니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고려말 이체현(李齊賢)의 『익재난고(益齋亂藁)』 소악부(小樂府)에 한역시로 ‘수정사’란 제목의 제주민요가 실려 있다. 이 시는 부패한 사대부들과 승려들의 방탕한 생활을 읊은 기녀의 말을 통하여 폭로하고, 특히 사주(社主)와 기녀와의 행각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내용은 이렇다.  
“도근천 제방이 터져 / 수정사 안에 물이 출렁이네 / 승방에다 이 밤에 미인을 채우니 / 주지는 도리어 뱃사공이 되었네.”(都近川頽制水防 水精寺裏亦滄浪 上房此夜藏仙子 社主還爲黃帽郎)
- 3) 正德辛巳(정덕신사)…, 洪裕孫(홍유손)… : 각주체의 글로 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이 글을 쓴 시기가 저자인 충암 김정이 사약을 받고 운명하던 해인 중종(中宗) 16년(1521) 음력 정월 16일이란 사실이다. 이로부터 정확히 9개월 뒤인 10월 17일에, 김정은 사약을 받고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둘째는 제주유배인 홍유손 역시 먼저 이런 글을 남겼다고 언급한 사실이다. 아마도 홍유손의 ‘존자암개구유인문(尊者庵改構侑因文)’을 두고 일컫는 듯하다. 참고로 홍유손(洪裕孫)이 제주로 유배 온 게 연산군 4년(1498)의 무오사화(戊午士禍) 때이고, 중종반정(1506)이 일어나던 해에 유배에서 풀려 자유인이 되었다. 이듬해인 중종 2년(1507) 정월 7일에 홍유손이 ‘존자암개구유인문’의 글을 썼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그보다 20년 뒤에 제주로 유배 온 처지인 김정 역시 이 글을 읽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제주학 향토자료 관련 글에서, 본래 홍유손의 존자암 관련 글이 중종 김정의 ‘존자암중수기’로 잘못 소개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예컨대 김상헌의 『남사록』과 이형상의 『남환박물』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서 이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 4) 舟道復遠(주도형원) : 뱃길이 아득히 멀다.
- 5) 寇剽之虞(구표지우) : 왜구(倭寇)의 약탈에 대한 근심. 특히 여기에서 ‘寇(구)’를 단순히 도적떼라고 풀이함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 당연히 왜구(倭寇)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6) 率憚(솔탄) : 대개 꺼려하다.
- 7) 聞道(문도) : 도리를 깨달음. 『논어(論語)』 「이인(里仁)」편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夕死可矣)”란 구절에서 인용한 듯하다.
- 8) 眈俗(맹속) : 평민들의 풍속. 민속(民俗).

聽於神乃奉狸鼠蛇鬼<sup>11)</sup>以爲神叢祠<sup>12)</sup>相望錚鼓<sup>13)</sup>相聞有名日朔望七七之祠<sup>14)</sup>祠一作祀<sup>15)</sup>必殺牲牢<sup>16)</sup>糜酒食以爲饗以是祠益謹而畜益耗業益損以至災沴<sup>17)</sup>妖訛<sup>18)</sup>饑饉癘疫<sup>19)</sup>盜賊繁興而益虔不怠雖揭之仁義毆<sup>20)</sup>之以刑威而不能已也求其所以化之之方唯佛爲最近佛之爲教主慈而禁殺有緣業福罪之權<sup>21)</sup>空寂出離之妙聳動大勝之機俗易怵<sup>22)</sup>而人易趨<sup>23)</sup>也由是而崇其棟宇嚴其像設俾<sup>24)</sup>得有歸依其病厄得喪祈求有所憑恃<sup>25)</sup>作善躍然<sup>26)</sup>有所欣造惡瞿然有所忌夫然則妖淫之祠無益之殺可以少弛也由是而良心介然<sup>27)</sup>孝弟油然而<sup>28)</sup>日遷善<sup>29)</sup>遠罪沛然<sup>30)</sup>流入於仁義之途以服上之教化則其於理化豈少裨<sup>31)</sup>乎哉由是而人化既融天和幸應災沴癘疫消息夫然則雖持卷而普勸之從而鼓舞之縱輿<sup>32)</sup>之起發其信心共結良緣捐財併力<sup>33)</sup>更新舊刹未爲過也已

- 
- 9) 朴鄙而癡(박비이치) : 질박하고 비루(鄙陋)하며 어리석다.
- 10) 好教(호교) : 어떤 믿음, 혹은 종교를 좋아하다. 여기에서 ‘教(교)’자를 ‘殺(살)’의 오자라고 주석을 단 경우도 있는데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 11) 狸鼠蛇鬼(이서사귀) : 이귀(狸鬼) · 서귀(鼠鬼) · 사귀(蛇鬼). 곧 삼행이 귀신, 쥐 귀신, 뱀 귀신.
- 12) 叢祠(총사) : 수목이 우거진 곳에 있는 사당. 보통 ‘叢祠(총사)’로 표기함.
- 13) 錚鼓(쟁고) : 징소리와 북소리.
- 14) 名日朔望七七之祠(명일삭망칠칠지사) : 명일지사(名日之祠) ; 명절날 찾는 사당 · 삭망지사(朔望之祠) ; 초하루 보름날 찾는 사당 · 칠칠지사(七七之祠) ; 음력 칠일 · 십 칠일 · 이십 칠일 날 찾는 사당. 보통 제주에서는 이를 두고 ‘일렛당’이라고 지칭함).
- 15) 一作祀(일작사) : 어떤 책엔 ‘祀(사)’자로도 쓰임. 보통 ‘祠(사)’는 사당(祠堂)의 의미로, ‘祀(사)’는 제사(祭祀)의 의미로 쓰인다고 전제할 때, 이 글의 문맥상 ‘祠(사)’보다는 ‘祀(사)’로 봄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16) 牲牢(생뢰) : 제사에 쓰는 가축. 희생(犧牲).
- 17) 災沴(재려) : 상스럽지 못한 기운인 악기(惡氣)로 입는 재해.
- 18) 妖訛(요와) : 요사하고 거짓 된 말.
- 19) 癘疫(여역) : 열병. 유행성 급성 전염병의 통칭.
- 20) 毆(구) : 몰아세우다. 옥죄다.
- 21) 權(권) : 저울. 저울질하다. 여기서는 권형(權衡), 즉 법도와 표준의 의미로 풀이했음.
- 22) 怵(출) : 두려워하다.
- 23) 趨(추) : 달리다. 붙좃다. 따라 행하다. ‘趨(추)’자와 같은 의미로 쓰임.
- 24) 俾(비) : ~로 하여금 ~하게 하다.
- 25) 憑恃(빙시) : 의지함. 의존함.
- 26) 躍然(약연) : 기뻐하는 모양. 혹은 약여(躍如)와 같은 뜻으로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남.
- 27) 介然(개연) : 고결함.
- 28) 油然而(유연) : 저절로 그러하게 되는 모양.
- 29) 遷善(천선) : 허물을 고쳐 착하게 됨. 보통 ‘개과천선(改過遷善)’이라고 함.
- 30) 沛然(패연) : 빨리 가는 모양. 비가 세차게 오는 모양.
- 31) 少裨(소비) : 적은 보탬.

## 【역문】

이른바 탐라국(耽羅國)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에 그 뱃길은 아득히 멀다. 바람과 파도, 혹은 왜구의 약탈에 대한 근심이 많기에 토박이 사람들은 북쪽의 물으로 나가 학문에 전념하기를 꺼린다. 도리를 들어 아는 자가 적기에 이곳의 풍속은 자연스레 질박하고 비루하며 어리석기까지 해서 어떤 믿음을 좋아한다. 대개 구하는 바가 있으면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병이나 액운 때문에 상(喪)을 당하면 그 복과 화를 하나같이 신에게 들으려 한다. 급기야 삼팽이나 쥐, 뱀 귀신마저도 신으로 여겨 모신다. 수목이 우거진 곳에 있는 사당들이란 여기저기 서로 마주 보일 정도이고, 징 소리와 북소리가 연이어 들려나올 정도이다. 명절 때 가는 사당, 초하루 보름이면 가는 사당, 7일 자 되는 날 찾아가는 ‘일렛당’ 등이 있다. 이 제사에는 반드시 가축을 죽여 희생을 삼고 죽과 술, 음식 등으로 향연을 삼는다. 이러기에 사당은 날로 삼가는 곳이 되고, 가축은 날로 소모가 되며, 사업은 날로 손해가 일어난다. 급기야 악기(惡氣)로 인한 재앙이 나타나기도 하고, 요사하고 거짓된 말이 나돌며, 기근(饑饉)과 전염병이 도는가 하면 도적떼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제사는 더욱 경건하고 태만할 줄을 모른다. 비록 인(仁)과 의(義)를 내걸어도, 형벌과 위엄으로 옥죄어도 막무가내이다. 그들을 교화시킬 방안을 찾아내야하는 까닭에 그것을 찾다보니 오직 부처만이 가장 근접한 해결책이었다. 부처를 믿는 종교란 자비를 위주로 하면서 살생을 금한다. 세상에서 지은 업(業)의 인연이 바로 복을 내리고 죄를 주는 저울인 셈이다. 공(空)과 적막함의 세계로 떠나올 수 있는 오묘함이 있기에 충동하면 크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따라서 풍속은 쉽게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은 이에 쉽게 불쫓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 암자의 건물을 숭상하게 되고 그 불상의 시설에 위엄을 갖추게 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불가에 귀의(歸依)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병과 액운 때문에 상(喪)을 당한 사람들이, 빌고 얻고자 함에는 착한 일을 지움에 의지하는 바가 생기게 되고, 눈앞에 전개되는 행동에는 나쁜

32) 縱與(종유) : 권함. 부추김.

33) 捐財併力(연재병력) : 재물을 출연하고 힘을 한데 모음.

일에 두려워하고 기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릇 그렇다면 요사하고 나쁜 사당은 적어지고 무익한 살생은 느슨해질 것이다. 따라서 양심이 고결해지면서 저절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질 것이며, 날마다 잘못을 바로잡아 고쳐나가면서 죄를 멀리함이 활기차게 전개될 것이다. 이것이 인의(仁義)의 길로 들어서면서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교화가 일어나게 한다면 그 이치에 맞는 교화가 어찌 적은 보탬이 된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사람의 교화가 무르익고, 하늘의 화기(和氣)가 다행스럽게도 조응(照應)하니 악기(惡氣)로 입은 재난은 자연스레 사그라지고 전염병의 창궐은 그치게 되는 것이다. 무릇 그렇다면 비록 책을 지닌 채 널리 따라오기를 권면함이나 신심(信心)이 일어나도록 직접 고무시키면서 부추김이나 매한가지로 모두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함인 셈이다. 이에 재물을 출연하고 힘을 한데 모아 다시 옛 사찰을 새롭게 함이란 사리에 크게 어긋나는 일은 아닌 것이다.

### 【讀原文】

或曰子<sup>34</sup>儒者不務敷揚<sup>35</sup>孔子之道以牖<sup>36</sup>乎遠俗而顧且<sup>37</sup>屢屢<sup>38</sup>焉資<sup>39</sup>誕謾<sup>40</sup>異教以爲說豈亦信道不遷也歟且將陷溺<sup>41</sup>人心靡靡不可止子焉所道<sup>42</sup>其嚮<sup>43</sup>余曰然子固以是而病我乎夫无所爲而爲善雖學者猶病之彼民俗之所喻者利害也得喪也所喜而惡者福與禍也彼但知利之利不知仁義之利利彼且恣睢<sup>44</sup>奮斂<sup>45</sup>唯蕪利<sup>46</sup>乎已而不暇顧夫病乎物如是焉而驟<sup>47</sup>而告夫

34) 子(자) : 그대. 여기서는 문맥 상 필자 자신인 김정(金淨)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문자답의 형식을 빌려 이런 글을 쓰게 된 자신의 의도를 피력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5) 敷揚(부양) : 널리 전파하고 선양함.

36) 牖(유) : 인도하다. 이끌다.

37) 顧且(고차) : 곧. 머지않아.

38) 屢屢(누누) : 여러 번. 여러 차례.

39) 資(자) : 갖추다. 구비하다.

40) 誕謾(탄만) : 방종하고 오만함. 황당무계함.

41) 陷溺(함늑) : 잘못된 길로 빠져 헤어날 수 없음의 비유.

42) 道(환) : 피하다. 면하다. 달아나다.

43) 嚮(건) : 허물. ‘愆(건)’의 고자.

44) 恣睢(자휴) :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함.

45) 奮斂(분탈) : 분발하여 바꾸다.

仁義彼寧知仁義爲何物提耳而惇誨<sup>48)</sup>之耳受以腹扞<sup>49)</sup>慳慳<sup>50)</sup>然矣然而罪福迫已之言猶或有時竦然<sup>51)</sup>動乎中而聽嚮焉其下者猶怯乎罪福以不敢肆<sup>52)</sup>焉由是而漸之乎善而除乎惡其不愈也耶<sup>53)</sup>茲固納約自牖<sup>54)</sup>之道也歟彼佛氏者生於西蕃獷悍<sup>55)</sup>之區雖使畢世<sup>56)</sup>談仁義道德未必有一二化也唯其廣張罪福而脅誘之彼其垂首受教不闕然<sup>57)</sup>屬刃以相視者亦幸矣此亦其設教之權也彼爲教雖誕謾愾慌<sup>58)</sup>其躋<sup>59)</sup>使人去惡從善復其良心則一也不知者固且<sup>60)</sup>以是而病<sup>61)</sup>吾後有知者必且因是而得吾心焉耳<sup>62)</sup>吾固有所不得已於斯言而於吾心有惻然<sup>63)</sup>焉

### 【역문】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하기를,  
 “그대는 유자(儒者)로서 공자의 도를 널리 전파하고 선양하면서 먼 곳의 풍속을 이끄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곧 황당한 이교(異敎)를 들먹거리며 누누이 강조함이란 이 어찌 도를 신뢰함이 옮겨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미미한 일에 인심을 빠뜨리게 함이 멈추지 않을 듯한데 그대는 어찌 그 허물을 면할 수 있단

46) 蕪利(기리) : 이익만을 빌다. 여기서 ‘蕪(기)’는 ‘祈(기)’와 통용.

47) 驟(취) : 갑자기. 별안간.

48) 惇誨(둔회) : 열심히 가르쳐 깨우침.

49) 腹扞(복한) : 마음속으로 막아서다.

50) 慳慳(공공) : 정성스러운 모양. 일설에는, 우직한 모양.

51) 竦然(송연) : 두려워서 오싹해지는 모양. 공경하고 조심하는 모양.

52) 肆(사) : 마음을 놓다.

53) 不愈也耶(불유야야) : ~이 더 낫지 않겠는가?

54) 納約自牖(납약자유) : 간단하면서 스스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함. 간략히 ‘납유(納牖)’라고도 함.

55) 獷悍(광한) : 거칠고 사나움.

56) 畢世(필세) : 필생(畢生). 생이 다할 때까지.

57) 闕然(함연) : 범이 입을 크게 벌린 모양.

58) 愾慌(창황) : 어리둥절함. 정신이 얼떨떨함.

59) 躋(위) : 옳다. 아름답다. 위덕(躋德)이란 아름다운 덕의 뜻이다. 즉 가르침으로 이해될 수 있다.

60) 固且(고차) : 잠시. 잠깐.

61) 病(병) : 근심하다. 염려하다.

62) 焉耳(언이) : ~할 뿐이다.

63) 惻然(측연) : 가엾게 여기는 모양. 슬프고 가슴 아픈.

말입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허나 그대는 참으로 이것을 두고 나의 병폐라고 여기십니까? 무릇 달리 할 바가 없는데도 선(善)을 행하라 함은 비록 배우는 학자라고 해도 오히려 그것을 병폐로 여깁니다. 저들 백성들의 풍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한마디로 이해득실(利害得失)입니다. 기뻐해 할 것은 복(福)이요 두려워해 할 것은 화(禍)입니다. 저들 백성들은 다만 이해관계에서의 이익에 대해서만 알 뿐이지 인의(仁義)의 가치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익은 알지 못합니다. 설사 저들을 이롭게 한다하더라도 제고 집대로만 할 뿐 오직 자신에게 이익 되는 일에만 분연히 태도를 바꾸면서 돌아다 볼 겨를조차 없습니다. 무릇 사물에 대한 병폐가 이러할진대 갑작스레 인의(仁義)를 들먹거린다면 하물며 저들이 인의를 어떤 것으로 알겠습니까? 귀를 잡아끌며 열심히 가르쳐 깨우친다 해도 귀로는 받아들여면서도 마음속으론 막아서면서 멍멍한 모습을 보일 게 뻔합니다. 그러나 죄와 복이 자신을 옥죄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은 그래도 간혹 움찔해 하며 몸을 떨게 만들 수도 있기에 도중에 귀를 기울이게도 할 것입니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의 사람의 경우엔 오히려 죄와 복으로 겁을 주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점차로 선에 다가가면서 악이 제거된다면 더 낮지 않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간략하면서도 사람을 절로 바른 길로 인도함이 아니던가! 부처란 사람은 본래 서번(西蕃)의 거칠고 사나운 지역에서 태어났기에 설령 생이 다할 때까지 인의와 도덕을 얘기하게 한다 해도 한 둘의 교화도 필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오직 그는 죄와 복을 널리 열어서 저들을 헐박하고 유혹해냈던 것입니다. 저들은 머리를 수그리고 교리를 받아들여면서도 입을 열어 한 마디의 불평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칼날에 추종하면서도 서로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설교의 한 표본인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교리가 비록 황당하고 어리둥절케 한다 해도 그 미덕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내쫓고 선을 따르게 해서 그 양심을 회복케 해준다는 점인데, 결국 이는 하나로 통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가 잠시 이를 두고서 나의 병폐라고 여길지 모릅시다만, 훗날 아는 자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진정 이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가 참으로 부득이하게 이런 말까지 해야 함이 내 마음에 서글픈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 【讀原文】

高君根孫<sup>64</sup>)信佛而心乎善者也念元朝<sup>65</sup>)舊物巋然<sup>66</sup>)獨存者唯都近川之水精寺風掀雨淋<sup>67</sup>)薨桷<sup>68</sup>)沒剝<sup>69</sup>)惜其且遂圯<sup>70</sup>)而无餘存也慨然<sup>71</sup>)奮思<sup>72</sup>)與同志者仍其舊而重營之庶幾<sup>73</sup>)其不墜乃來求文於余甚勤於是乎撰其答客之語書以畀<sup>74</sup>)之

※ 出典 : 影印本 『冲庵先生文集』 (서울대奎章閣藏本), 194-195쪽.

### 【역문】

고근손(高根孫) 군은 불교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착한 자이다. 생각건대 원(元) 나라 때의 오래된 유물로서 우뚝하게 홀로 남아 존재하고 있는 게 오직 도근천(都近川)의 수정사(水精寺) 뿐이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흔들리고 젖어들면서 건물의 용마루와 서까래가 썩고 벗겨졌는데, 장차 그것이 허물어져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이를 애석하게 여겼던 그는, 이에 보다 못해 생각을 강하게 떨쳐내어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더불어 그 옛 모습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다시 중수(重修)하고자 한 것이다. 원컨대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빌면서 나에게 찾아와 문장을 구하려 들이 참으로 열심이었다. 이에 그 길손에게 답하는 형식의 글을 지어 그에게 주노라.

64) 高君根孫(고근손) : 고근손(高根孫) 군(君). 제주도 토박이로 보이긴 하지만 자세한 인적사항이 알려지지 않음.

65) 元朝(원조) : 원(元) 나라 조정 때.

66) 巋然(규연) : 홀로 우뚝 선 모양.

67) 風掀雨淋(풍흔우림) : 바람에 뒤집혀지고 비에 젖다.

68) 薨桷(맹각) : 용마루와 서까래.

69) 沒剝(몰박) : 깨지고 벗겨지다. 원문의 ‘ $\dot{\gamma}$ +多’의 형태의 한자어는 옥편에 실려 있지 않음.

70) 圯(비) : 무너지다. 부서지다. 허물어지다.

71) 慨然(개연) : 분개하는 모양. 감정이 격앙된 모양.

72) 奮思(분사) : 생각을 떨쳐내다.

73) 庶幾(서기) : 바라건대. 원컨대.

74) 畀(비) : 주다. 건네주다.

※ 출전(出典) : 영인본 『충암선생문집(冲庵先生文集)』 (서울대규장각장본), 194-195쪽.